



현대의 거룩한 청년들

이낙희 신부 (편집자)

현대의 거룩한 청년들

이낙희 신부 (편집자)

차례

머리말.....	6
카를로타 노빌(Carlota Nobile)	9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교황님은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9
클레어 크로켓(Clare Crockett) 수녀님.....	15
친척들이 그의 성소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15
귀도 샤퍼(Guido Schäffer).....	19
신학생, 의사, 서퍼.....	19
미셸 뒤퐁(Michelle Duppong),.....	23
FOCUS(미국 대학생 복음화)의 선교사	23
로한 케무(Rohan Kemu), 장애로 태어나다.....	29
병든 자도 거룩하고 간병인도 거룩하다.....	29
마르셀로 카마라(Marcelo Camara)	33
젊은 검사도 성인이 될 수 있다.....	33
기타하라 사토코(Satoko Kitahara)	37
“개미 마을”의 천사.....	37
지안루카 피레티(Gianluca Firetti).....	41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인가?	41
아카시 바시르(Akash Bashir).....	45
붐비는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자살 폭탄 테러범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어도 너를 들여보내지 않겠다.”	45

십자가의 벨렌(Belén de la Cruz) 수녀님.....	49
WYD 의 열매.....	49
페드로 발레스터(Pedro Ballester)	55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55
비비안 우체치 오구(Vivian Uchechi Ogu)	59
자신의 본당에서 활동한, 폭력의 피해자	59
마리아 레케나(María Requena).....	62
간호사 안락사? 또는 완화 치료!.....	62
이태석, 살레시오회 소속 선교사 신부님.....	65
“모든 것이 좋습니다!”	65
엘레나 칼레로 바아몬드(Elena Calero Bahamonde).....	69
본당 생활의 모범	69
키아라 코벨라(Chiara Corbella)	73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탈리아의 젊은 어머니.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으며,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73
카를로 아쿠티스(Carlo Acutis), 15 세 소년.....	77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많다.....	77

머리말



세계청년대회 2027 준비하기 위해, 거룩한 청년들의 생애도 출판하고자 한다. 그들은 믿음이 어떻게 삶이 되는지 보여 주는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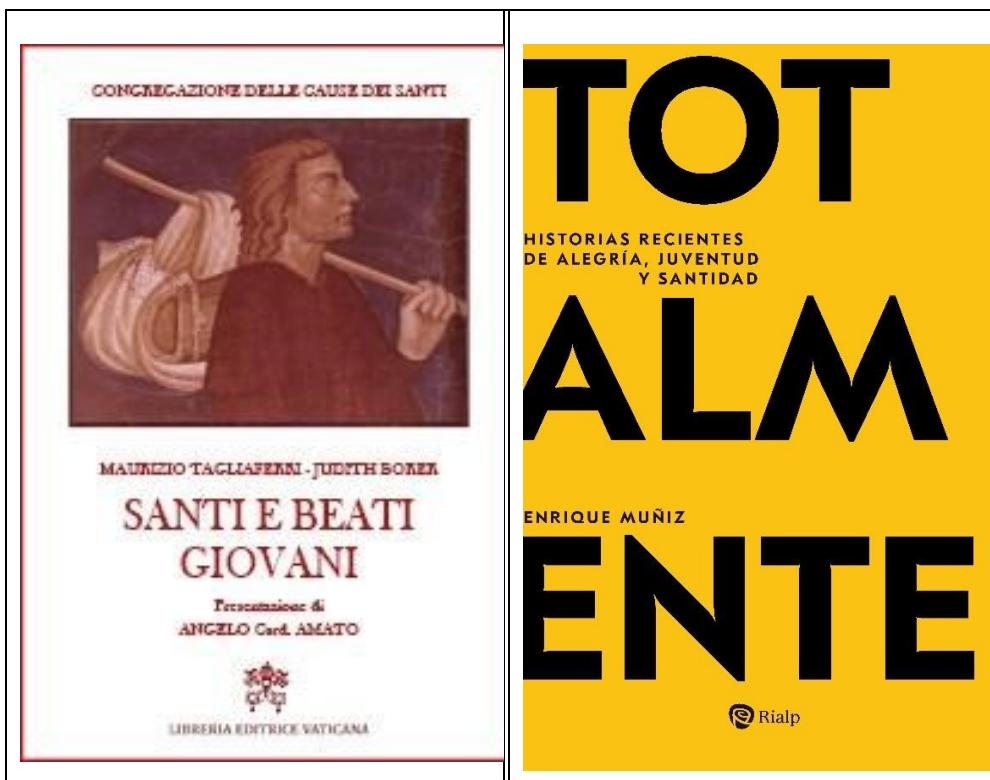
Carlo Acutis 은 이제 시성될 예정이며, 잘 알려져 있다. 또 다른 10 명의 여성과 7 명의 남성에 대해 쓰고 싶다. 오직 한 여성만이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독신이 아니라,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신도, 수녀님, 신부님도 있다.

Carlotta Nobile. Clare Crockett 수녀님. Elena Calero Bahamonde. Guido Schaffer 신학생. Marcelo Camara. Satoko Kitahara. Maria Requena. Michelle Duppong. Pedro Ballester. Belen de la Cruz 수녀님. 이태석 신부님. Rohan Kenu. Gianluca Firetti. Akash Bashir. Vivian Uchechi Ogu. Chiara Corbella. Carlo Acutis.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누구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이웃, 학교, 스포츠, 교우 관계, 봉사 활동, 직장 안에서 두려움 없는 선교사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복음의 기쁨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밖으로 나가 모든 이를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빛과 희망을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용기, 담대함, 열정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177).

이 책을 쓰기 위해 저는 두 책에서 정보를 얻었다.

- Congregazione delle cause dei santi, “Santi e beati giovani”, (2023)
- Enrique Muniz, “Totalmente”, (2024)
- 그리고 각 개인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보.



카를로타 노빌(Carlota Nobile).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교황님은 제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카를로타 노빌은 1988년 12월 20일 로마에서 태어났다. 17세에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고전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였지만 16세 무렵부터 신앙심이 식었다. 그는 “믿기는 하지만 신앙은 제 일상 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라 사피엔자 대학교(로마)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미술 및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캠브리그 대학교에서 스페인 미술, 뉴욕 소더비 미술대학에서 현대 미술, 로마 루이스 미술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더했다. 런던과 잘츠부르크에서

음악 교육을 받았으며 21 세에 베네벤토 산타 소피아 아카데미의 실내악단 예술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2011년 10월 5일, 그의 인생에 뜻밖의 손님, 흑색종이 찾아왔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형벌로 생각했고, “왜 나에게?”라고 이해하지 못했다.

그 후 그는 ‘암과 그 이후’라는 제목의 익명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했다. 나중에 블로그로 전환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공유하기 위해 “암이라는 매우 어렵지만 매우 형성적인 삶의 경험에 대해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만들었다.

그 페이지를 통해 그는 “왜 나는 안 되나요?”라는 댓글을 받고 암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콘서트와 병원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리고 2013년 3월 24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종려주일을 맞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론에서 젊은이들에게 기쁨으로십자가를 지라고 권유하셨다. 또한 “우리의 기쁨은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일깨워 주셨다.

칼로티는 참회의 성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것은 그의 양심의 섬세함을 나타낸다. “나는 바이올리니스트, 미술사학자, 작가, 블로거가 되어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면의 감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고해성사에 가서 성찬의 은총을 받아야겠어.”라고 생각했다.

성 금요일, 칼로티는 로마의 비아 델 코르소 거리를 걷는다. 고해성사를 하러 갈 교회를 찾다가 오거스타에 있는 산 자코모 성당이 문을 연 것을 보고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한다.

고해성사를 하러 간 카를로티는 주세페 신부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 자신이 기쁨으로 젊어져야 할십자가가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의 암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신부님은 칼로타에게 교황님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교황님은 본당에 전화를 걸어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다음 단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직접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청중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병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했다.

칼로타는 교황님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었다.

"친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교황님은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24 살의 나이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암이 제 영혼을 치유하여 제내면의 모든 얹힌 실타래를 풀고 병이 가장 심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엄청난 믿음과 신뢰, 포기와 평온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하며 힘들고 혐난한 길에서도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합니다. 친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 교황님은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황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황님을 만나서 잠시라도 함께 성모님께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매일 교황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13년 4월 5일,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어느 날,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탁!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매듭이 풀리고, 모든 길이 명확해지고, 평생 답할 수 없었던 모든 질문에 저절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암에 걸렸다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고, 전환점이며, 진정한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암이 그대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고, 믿음, 희망, 자신감, 포기를 되찾아 주었으며, 마침내 그대가 평생 동안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해 왔지만 결코 그랬던 적이 없는 평온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대는 마침내 그대에게 빛을 가져다 준 것이 암, 그 고통, 공격성, 가혹함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탁! 그리고 그대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순간, 한 순간에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그대의 영혼이 치유됩니다.

어느 날 위기에서 깨어났을 때 순식간에.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내면이 치유되었습니다. 아팠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싸워야 할 것이고, 그 길은 여전히 오르막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저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제 안에서 명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 이 힘, 내면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으로 이제야 제가 왜 아팠고 왜 제 영혼이 치유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내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런 삶을 알게 된 것이라면,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제게 일어난 일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저는 영혼이 치유되었고,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무조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후”가 올 것입니다 (블로그는 “암과 이후”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칼로타는 7 월 16 일 새벽에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세상을 떠났다.



클레어 크로켓(Clare Crockett) 수녀님.

친척들이 그의 성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클레어 크로켓(북아일랜드 테리, 1982년 11월 14일 - 에콰도르, 2016년 4월 16일)은 가톨릭 수녀님이자 전직 배우였다.

1968년부터 1998년까지(벨파스트 협정, 1998년) 북아일랜드는 테러리즘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리고 클레어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10대 시절 그는 숙제를 피하고,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수학 문제 풀이가 적힌 공책을 훔치고, 아주 일찍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주일 미사에 다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놀러 가고, 디스코에 들어가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고, 술을 마셨다.

1999년 1월, 16살의 나이에 클레어는 친구들의 초대로 가톨릭 단체의 피정에 참여했다. 그는 특히 성체 경배에 깊은 감명을 받고 결심을 굳혔다.

"주일 미사에 꼭 참석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성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소명을 가지려면 수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때 클레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수녀님들은 모두 82 살이고, 창문만큼 큰 안경을 쓰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해!"

그리고 2000년 성주간이 되었다. 친구가 스페인 성지순례를 신청했는데, 몇 주 전에 맹장염 수술을 받아 갈 수 없게 되었다.

"클레어, 나 대신 스페인에 갈래? 비용은 다 지불했어". 클레어는 열흘 동안 휴가를 보낼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도원에서 피정을 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거절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성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날 소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배하기 위해 교회 중앙 통로에 줄을 섰어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광경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몸짓은 저에게 매우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사의 합창이나, 천정에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흰 비둘기는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클레어는 데리로 돌아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로마에서 열린 '어머니의 집' 그룹과 함께 2000년 WYD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아니 더 나쁜 삶으로 돌아갔다. 주말에 외출하기 전에 그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다. 때때로 클레어는 술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취해 있었다.

학교 마지막 학기에 클레어는 세속적인 삶과 성소에 대한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고, 세속적인 삶이 승리하는 것 같았다. 항상 배우가 되고 싶어했던 그는 무대 배우와 채널 4의 텔레비전 진행자로 일했고, 1972년 데리에서 일어난 피의 일요일 사건을 다룬 2002년 영화 '선데이'에서 작은 배역을 맡았다.

영국에서 촬영하던 중 어느 날 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그는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렀다.

“몇 시간이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있고, 성공하기 시작했고, 돈도 있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내 안의 큰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결코 저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 큰 구명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페인으로 가서 “어머니의 집의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때 18 세였다.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친척들이 그의 성소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2001년부터 그의 이야기는 기쁨, 기도, 봉사, 사랑, 정화와 압도적인 동정, 수녀들과 모든 이들, 특히 가난과 질병, 외로움, 종교적 무관심 때문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순명, 창의성, 게임, 농담, 성체조배의 밤, 공부, 독서, 묵주기도에 대한 의심과 눈물, 형제애의 흥미진진한 모험이다.

클레어 수녀님은 15년 동안 스페인, 미국, 에콰도르에서 봉사했다. 33세였던 2016년, 에콰도르에서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그와 다른 4명의 수녀님들이 사망했다.



귀도 샤퍼(Guido Schäffer).

신학생, 의사, 서퍼.



귀도 비달 프랑사 샤퍼는 1974년 5월 22일 브라질 볼타 레돈다에서 태어났다. 귀도 마노엘과 마리아 나사렛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가톨릭 카리스마 리뉴얼의 회원이었다. 여동생 안젤라와 남동생 마우리시오가 있다. 가족은 곧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로 이사했고, 귀도와 그의 형제들은 그곳에서 서핑을 배웠다.

귀도는 어머니가 자녀 및 친구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집에서 거행하는 세나클(마리아 사제 운동)에 참여했다. 물론 귀도는 파티, 음악, 춤, 축구 등도 친구들과 함께 즐겼다.

웹 사이트에서 그의 직업에 대해 복사했다. “1997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교황과 함께하는 세계 가족 회의에서 귀도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신을

바라보며 사제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마음속에 일깨워 주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하지 않았다.

1998년 그는 의학을 전공하고 이파네마에 있는 노사 세뇨라 다 파스 교구에서 "Grupo Fogo do Espírito Santo"를 시작했다.

1999년 피정 중에 귀도는 하느님께 "예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러던 중 그는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설립한 수녀회(자선 선교사 수녀회)의 수녀들을 만났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의학 공부의 방향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느꼈다. 귀도는 자선 선교사들에게 자신도 일을 돋겠다고 제안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산타 "자비의 거룩한 집"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공부한 그는 이 전공을 통해 환자와 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의로서 의술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2000년에 귀도는 세 번째로 사제직에 부름을 받았다고 느꼈다. 파티마 성지를 방문한 후 그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여자 친구와의 교제를 중단했다. 그는 의료 활동과 사제직을 병행하며 사제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08년 성 요셉 신학교(리우데자네이루)에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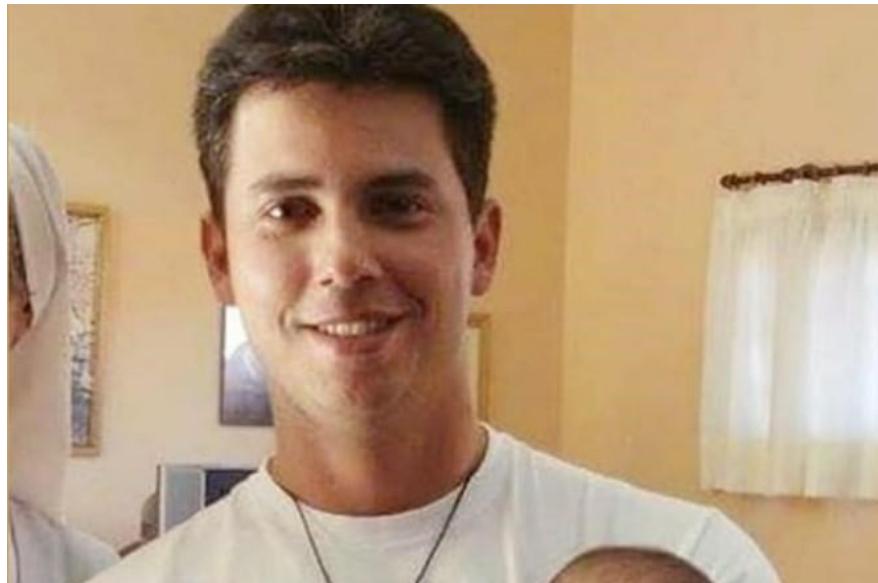
"자비의 거룩한 집"의 상사였던 밀턴 교수는 귀도의 모범과 말씀 덕분에 회심했다. 귀도는 신학생들이 성스러운 집과 협력하는 데 익숙해지기를 원했고 밀턴 교수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밀턴과 귀도는 200명이 넘는 거지들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그들은 거지들을 위해 성스러운 자비의 거룩한 집의 침대를 함께 사용했다.

사제직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해변에서 전도를 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마리아의 서퍼스'라는 기도 모임을 비롯해 여러 기도 모임을 조직했다.

2009년 5월 1일,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인 34세의 나이에 귀도는 서핑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는 파도에 휩쓸려 넘어졌고 보드가 뒤통수에 부딪혀 쓰러져 익사했다. 친구들과 서핑을 하러 자주 가던 해변 중 한 곳에 있었다.

귀도는 예수님이 최초의 서퍼라고 말하곤 했다. 왜냐하면 겐네사렛 호수의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20일, 교황청 시성성은 귀도의 영웅적인 미덕을 인정했다.



**미셸 뒤퐁(Michelle Duppong),
FOCUS(미국 대학생 복음화)의 선교사.**



미셸 뒤퐁(Michelle Duppong)은 1984 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다섯 자매와 오빠 하나가 있다. 가족은 나중에 노스다코타로 이주하여 농장을 구입하고 농사를 지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나이와 능력에 따라 농장에서 일을 도왔다. 아이들은 밭에서 수확하고, 닭 모이를 주고, 달걀을 모으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정원을 관리하고,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

어머니 메리 앤은 불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돈이 없었다고 회상한다. 그들이 구입한 옷, 가구, 기계는 대부분 중고품이었습니다. 가족은 휴일에도 레스토랑,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에 거의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가 뛰어났고 자녀들이 자신들만의 오락거리를 만들도록 장려했다. 가족 파티, 겨울철 눈썰매 타기, 건초 더미 사이에서 숨바꼭질 놀이 등이 대표적이다.

함께 미사에 참석하는 일요일과 크리스마스는 뒤풋 가족에게 특히 소중한 날이었어다. 또한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는 했다. 메리 앤은 지역 청소년 단체인 '생명을 위한 청소년'을 조직하고 본당에서 교리 교육을 가르쳤다.

2002년, 미셸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장학금 덕분에 그는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NDSU)에 입학할 수 있었다. 2006년에는 원예학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시절 미셸은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세인트 폴 뉴먼 센터를 자주 방문했다. 그곳에서 미셸은 대학 캠퍼스에서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운동인 FOCUS(가톨릭 대학생 친목회, <https://focus.org/>)의 선교사들을 만났다.

졸업 후 미셸은 6년 동안 포커스 선교사로 활동하며 네브래스카-링컨 대학교,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사우스다코타 대학교, 메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과 동행하고 멘토링을 제공했다. 2012년에는 비스마르크 교구의 성인 신앙 형성 담당 디렉터로 임명되었다.

그는 종종 학생들과 친구들을 가족 농장으로 데려와 음악과 춤, 농장 일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누었다. 그는 매우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2014년 12월, 그는 진행성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완화 치료 외에는 치료법이 없었고, 두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1년을 더 살았다. 그는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을 반복했다.

"미셸은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의 어머니는 회상한다. "미셸의 태도는 '신이 이 일을 겪으라면 겪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메리 앤에게 단 10개월의 삶을 위해 치료의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미셸은 깊은 신앙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그 선함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막내 여동생인 칼레네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미셸이 룸메이트를 구해주고 매일 미사 시간에 맞춰 수업 일정을 잡으라고 했다고 회상한다. “당시 미셸이 저에게 해준 가장 좋은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위압적이지는 않았지만 단호했고, 저를 바로 뉴먼 센터 그룹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런 모범적인 언니의 그늘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미셸의 선교사적인 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제프는 이렇게 말한다. “미셸의 고통스러운 마지막은 힘들었지만 누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미셸이 은총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바친것은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미셸은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바라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기적이 찾아왔지만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다. 그의 아버지 켄은 이렇게 설명한다. “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요. 1년 동안 고통이 계속되었는데, 힘들었지만 평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헌신했지요. 그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우리는 미셸, 메리 앤, 레네와 함께 전화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애는 다른 포커스 선교사들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으니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최선을 다했지요.”

시복 절차는 2022년 비스마르크 교구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인 10월 21일, 미셸은 공책에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를 썼다.

“나의 사랑스러운 예수님,

제 인생의 선물, 당신의 충만한 사랑과 자비, 가톨릭 신앙의 선물, 제 보물인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저를 지금의 여성으로 만들어 주신 모든 경험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성인이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모두 당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주님께 많은 고통을 안겨드린 저의 모든 죄, 특히 다른 이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의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자비가 당신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손으로 당신의 큰 자비에 매달립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임금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자비를 받고 달려가도록 돋고 싶습니다! 고해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곧 저를 집으로 데려가신다면, 결국에는 당신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기도로 저를 위로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채워주세요.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제 인생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제가 당신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On December 25th, 2015 former FOCUS missionary Michelle Duppong passed away from cancer.

Her love for Christ and her thirst for souls continue to inspire people today.

로한 케무(Rohan Kemu), 장애로 태어나다.

병든 자도 거룩하고 간병인도 거룩하다.



우탄(인도, 뭄바이)에 있는 자선의 집은 1992년에 지어졌다. '마리안 자선의 집' 수녀회는 이탈리아 신부인 마리오 프랜디(1910-1986) 신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현재 유아부터 노인까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11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다.

갓프리 말루 신부님은 우탄에 있는 바다의 성모 본당의 사제로, 8년 전 로한을 만났다. 말루 신부님은 아시아뉴스에 이렇게 말했다.

"로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에 의해 인내와 인내, 자비와 사랑의 모범이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면 마음이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게다가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을 보면 불평하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한은 뇌의 잘못된 메시지로 인해 신체의 특정 부위에 통제할 수 없는 근육 경련이 발생하여 매우 고통스러운 근긴장이상증을 앓고 있었다.

로한의 어머니는 그가 세 살 때 돌아가셨다. 그의 아버지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였고, 로한을 끊임없이 구타했다. 매일같이 학대와 고문을 당하는 로한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수녀님들에게 로한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겪은 트라우마는 너무 많은 두려움을 만들어냈고, 처음에는 수녀님들이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그는 스스로 뒤로 물러섰다. 또한 남성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해 그를 겁에 질리게 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면 그는 즉시 두려워했다.

“로한은 이 집에서 장애인인 다른 손님들과 함께 자라면서 점차 삶을 즐기게 되었고 행복하고 쾌활하며 항상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로한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첫 영성체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교리 수업에 참석했고,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이며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체성사에 대한 그의 사랑은 너무 강해서 영성체를 받지 못하면 화가 나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TV에서 라틴어 미사를 따라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도 마하라티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고 몸과 마음과 영혼 등 전인격으로 참여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인은 오상의 비오 신부님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였다. 그는 베개 밑에 오른쪽에는 오상의 비오 신부님, 왼쪽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성화를 두었다. 이 두 성인이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중보기도를 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한은 만화와 녹은 초콜릿을 좋아했다. 그의 미소는 그를 치료한 의사들에게도 전염되었는데, 어떤 의사들은 로한의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기도 했다.

말루 신부님은 “로한이 준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하며 “그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신 하느님께 웃으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로한은 2020년 6월 4일 봄베이 자선의 집에서 사망했다. 사건 발생 4일 후 니르말라 카르발류 기자가 발표한 뉴스를 싣는다.

“18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청년 로한 케무가 6월 4일 봄베이 북쪽 우탄에 있는 자선의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마리안 하우스의 수녀들은 ‘성스러움의 냄새’를 남긴 그를 돌보았습니다.

수도원 원장 줄리 폐레이아 수녀님은 로한이 “세 살 때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우리에게 선물 같은 존재였다”며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기쁨과 은총을 주었다”고 회상합니다.

줄리 수녀님은 입소 후 20일 동안 로한이 계속 열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녀님은 밤낮으로 로한을 품에 안고 침대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 거룩한 자비의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다, 네가 안고 있는 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렇게 하라. 네가 그에게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로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묵상하는 방법과 그분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고통이 많을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 진실해졌습니다.”

그들 중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인가요?

마르셀로 카마라(Marcelo Camara).

젊은 검사도 성인이 될 수 있다.



마르셀로 카마라는 1979년 6월 28일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에서 태어났다. 마르셀로가 열 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별거했고, 이 사실은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는 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머니를 매사에 돋고, 아버지와 좋은 우정을 유지함으로써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태도로 대처했다.

1997년에 마르셀로는 산타카타리나 연방대학교(UFSC)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그의 회심이 일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첫해 두번째 학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저는 마르셀로와 동생의 생각을 무시하고 미사에 데려갔어요. 거기서 저를 아시는 신부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 아이들이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그들과 얘기해도 될까요?” 신부님이 물으셨어요. “물론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은 마르셀로의 열정을 눈여겨보시고, “엠마우스” 코스에 초대하셨나 봅니다. 1997년 8월에 그는 이 과정을 마쳤고 그때부터 그의 신앙심, 존재 방식, 신중함, 규율, 평온함과 온화함이 모든 공부에 더해져 꽃을 피웠습니다.”

마르셀로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마지막 순간에 수련회에 참가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거절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엠마우스”에서 사울처럼 저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방인이었던 그 분이 제 삶의 의미이자, 제 존재의 근거로 순간순간 제게 드러났습니다.”

엠마우스에서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성사에 자주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내세웠으며, 친구들과 함께 사도직을 수행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를 활용했다.

마르셀로는 화-목-일요일에도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또한 본당에서 교리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학업에도 매진했다. 2002년에는 법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3년 3월에 시작하여 2004년 7월에 훌륭하게 UFSC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졸업 후 그는 플로리안노폴리스 대학 (IES)과 산타카타리나 대학 (FASC)에서 법학 정교수로 재직했다.

그때 마르셀로는 오푸스데이를 알게 되었다. 그와 몇몇 동료들은 토요일마다 쿠리치바에 있는 오푸스데이의 센터로 가기 시작했다. 자동차로 왕복 7~8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들은 여행 중에 기도, 독서, 묵주기도, 음악, 모임, 교통 체증 등을 함께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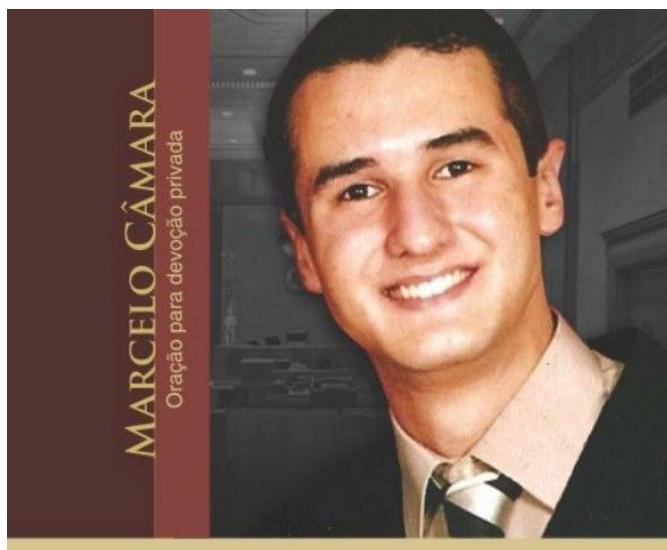
2006년에는 오푸스 데이에 입회 신청을 했고, 본당과 엠마우스 그룹 활동에 계속 참여했다. 2006년 10월, 마르셀로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마르셀로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요법을 받고, 약물 치료와 수혈을 시도하며 여러 병원에 입원했다.

동시에 그는 주 검찰청 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결심을 유지했다. 마르셀로는 약 2,000명의 응시자 중 합격자 20명 가운데 5위로 합격했고 2007년, 그는 검찰청 특별검사실의 제 10대 차장 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암과 치료로 인해 겨우 90일 동안만 검사로 일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그의 업무의 질과 사람에 대한 관심은 빛을 발했다.

예를 들어, 그는 많은 범죄를 저지른 한 청년을 감옥에 보내야 했는데, 배심원단이 그에게 선고를 내린 후, 마르셀로는 그에게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삶을 바꾸도록 격려했다.

마르셀로는 2008년 3월 20일 성 목요일에 선종했다. 시복 시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타하라 사토코(Satoko Kitahara).

"개미 마을"의 천사.



기타하라 사토코는 1929년 도쿄에서 태어나 1958년에 사망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5남매(딸 4명, 아들 1명)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제 2 차 세계대전 중 오빠와 함께 나카지마 비행기 창고에서 일하도록 소집된다. 기타하라는 전쟁이 끝난 후 대학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소와여자대학의 약학부 학생이었던 그는 가톨릭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기타하라는 1949년 졸업과 동시에 졸업장을 받았다.

아버지는 가톨릭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손녀 초코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초코를 메르세다리안 수녀회(스페인 출신인)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낸다. 기타하라는 초코와 함께 학교에 갔다가 메르세다리 수녀복을 입은 일본인 수녀를 보고 깜짝 놀란다.

얼마 후 초코는 수녀원 학교에서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원장 수녀는 초코와 함께 있는 기타하라를 보고, 미사에 참석하도록 초대한다. 이렇게 기타하라도 매일 오전 6 시 수녀원 예배당에서 열리는 아침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한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자녀의 열망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딸의 신앙에 대한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딸을 설득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그는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가 쓸모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딸을 설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하라가 스무 살인, 1949년 10월 30일에 세례를 받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세데리안 수녀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되고 이를 위해 수녀 중 한 명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필수 조건). 하지만 고열로 인해 결핵 진단을 받은 후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 메르세다리안 수녀회는 건강이 좋지 않은 수녀를 새 수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1950년 11월, 기타하라는 폴란드 수녀원 프란체스코회 수사 제노 제브로스키 (1891~1982)를 만난다. 제브로프스키는 1930년 성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와 함께 일본에 온 적이 있었다. 그는 “개미 마을”(아리노마치)로 알려진 강변의 빈곤층과 노숙자 정착촌에서 일하고 있었다.

제브로프스키 수사님과 기타하라는 병자, 실향민, 고아를 돌보는데 협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포기하고 노숙자 및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

마쓰이 토루는 “개미 마을”的 비공식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토루는 기타하라에게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둘다 함께 일한다. 토루는 1953년에 세례를 받기도 했다.

1951년 초에 기타하라는 이마쿨라타에 민병대의 일원이 된다. 아이들을 향한 그의 헌신은 강렬했고, “개미 마을”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더욱 강해진다.

기타하라는 1958년 결핵으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그의 어머니는 1962년에 교회에 입교했다. 1981년 시복 절차가 시작되면서 기타하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의 영웅적인 미덕의 삶을 인정하여 복자로 선포했다.



지안루카 피레티(Gianluca Firetti).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인가?



지안루카 피레티는 1994년 9월 8일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부모와 4명의 형제가 있다. 지안루카는 농업 기술을 공부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은 결과 골육종 진단을 받고, 2015년 1월 30일 2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발렌티나라는 친구 덕분에 지안루카는 투병 초기에 신부인 돈 마르코 다고스티노를 만난다. 그 만남들의 결과로, 두 사람은 함께 추천할 만한 책인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지안루카의 알파벳”.

이 책은 전기가 아니다. 오히려 지안루카의 초기 의심과 의문을 보여준다. 또한 그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편지와 교황의 답장, 성체성사 신심, 일정, 사귄 친구들에 대한 최종 확신을 보여 준다.

이 책에서 돈 마르코는 지안루카와의 대화를 기록한다.

“수술 전후로 13 번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몇 달 더 화학요법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번 통증이 있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 주기도 다시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치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안루카는 저를 돈 마르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둘로 쪼갤 듯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안루카는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리석거나 진부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기 전에, 그는 먼저 대답을 합니다. “오늘까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잠시 멈추고 성찰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오로지 오르막길만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질병은 모든 희망, 욕망과 꿈을 짓밟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 이 세상에 두신 것은 내게 오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인생이 햅살과 장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시나 봐요”.

(돈 마르코 신부님) “이제 침묵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대답에 나는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기안루카의 발과 손, 옆구리에 키스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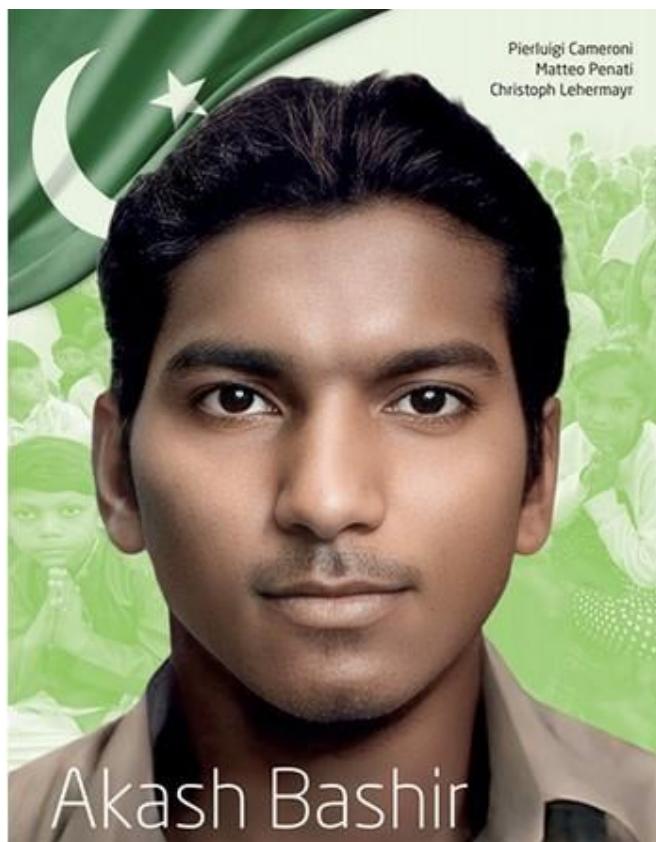
지안루카의 방에서 나와서 저는 어떻게 그가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안루카의 말이 맞습니다. 인생이 햅살과 장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안루카처럼 귀중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닌 꽃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프로 축구 선수로서의 미래, 꿈, 의심, 여자 친구, 외모에 대한 관심, 생각의 깊이, 성격의 단순함 등 그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아카시 바시르(Akash Bashir).

붐비는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자살 폭탄 테러범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어도 너를 들여보내지 않겠다.”



아카시 바시르는 1994년 6월 22일 파키스탄 리살푸르에서 태어났다. 2013년 폐샤와르 시내의 올 세인트 교회에서 85명이 사망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본당들은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2015년 3월 15일 일요일, 아카시 바시르는 천여 명의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던 라호르의 세인트 존스 본당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아카시는 한 남성을 의심하고 다가가 폭발물 벨트를 차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를 끌어안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그가 들고 있던 폭발물을 터지는 것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죽더라도 너를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아카시는 교회 안에서의 학살을 막았다. 그는 라호르에 있는 돈 보스코 기술 연구소의 학생이었으며 교구 청년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했다.

아카시의 시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는 2022년 1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하느님의 종”로 선포되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요약한다. “그의 용기 덕분에 테러리스트가 성당에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테러 단체 테흐리크-에-탈레반 파키스탄 자마ত 아흐라르(TTP-JA)는 이날 다른 성당에서 17명을 살해한 공격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주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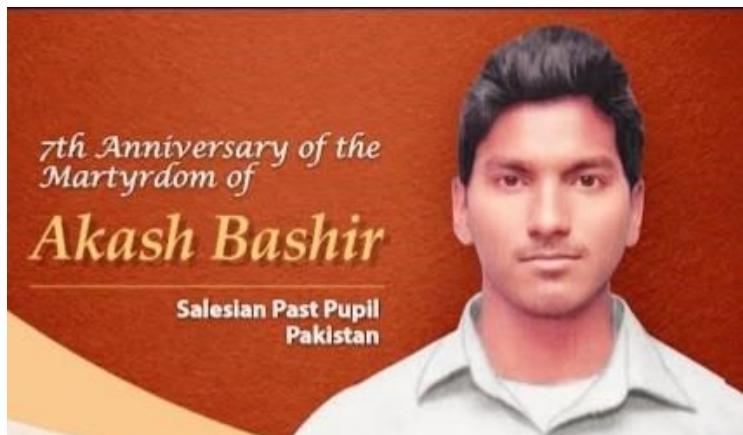
가톨릭 통신에 따르면, 라호르 대주교인 세바스찬 쇼 대주교는 바티칸이 아카시 바시르를 하느님의 종으로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라호르 대교구 총대리 프란시스 굴자르 신부는 “그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중 두 번째로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바시르의 어머니 나즈 바노는 “아카시는 친구들과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당을 지키고 싶다고 석 달 동안 계속 주장하고는 했다.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기회를 주신다면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재 그의 다른 아들 중 한 명도 성당에서 자원봉사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형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다”는 둘째 아들을 ‘우리가 막지 않았고, 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어머니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고통보다 큽니다. 아카시는 주님의 길에서 죽어 사제와 신자들을 구한 단순한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합니다. 아카시는 이미 우리의 성인입니다.”라고 어머니는 결론을 내렸다.



*7th Anniversary of the
Martyrdom of*
Akash Bashir

Salesian Past Pupil
Pakistan

십자가의 벨렌(Belen de la Cruz) 수녀님.

WYD 의 열매.



벨렌 페리 오스본은 1984년 6월 27일 스페인 카디스에서 태어났다. 2005년, 21세의 나이에 코르도바에 있는 카르멜 수녀원 수녀원에 십자가의 벨렌은 이름으로 입회한다. 2017년 4월 난소 종양 진단을 받고 거의 1년 뒤인 3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치료한 사람들의 증언과 그의 글,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르멜 수녀가 사망했을 때 쓴 긴 부고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벨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가 카르멜에 가기로 결정한 과정이 특별했다.

벨렌의 가족은 종교적이었다. 그는 오푸스데이 학교인 그라잘레마에서 공부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마드리드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는 마리아 수녀회의 기숙사에서 살았다.

벨렌은 골프를 쳤고 운전을 좋아했으며 스포츠맨이었다. 얼마 후 수녀원에서 이전 활동에서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항상 “운전”이라고 대답했다.

벨렌은 또한 담배와 맥도날드를 좋아했다. 가끔 파티에 나가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주변을 즐겁게 만들었다.

대학 1 학년 때인 2003년, 그는 수련회에 참가했다. 그 후 매일 기도하고 미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마리아 수녀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스페인으로 사도 여행을 떠나왔고 쿠아트로 비엔토스 공항에는 70만 명의 젊은이들을 모였다. 교황은 젊은이들을 격려했다.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침묵하지 말고 기꺼이 응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여름에 그는 사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썼다.

“부모님과 회사에 대한 나의 태도가 좋지 않았을 때, 그는 꾸짖는 말한마디 없이 하얀 골프채를 손에 들고 나를 데리러 왔고, 지금은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된 “가족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해 주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벨렌은 가장 자주, 큰 인내심으로로 제 길을 바로잡아 준 사람입니다.”

2003년 10월, 그는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루르드 성지 순례를 떠난다. 크리스마스 연휴 중 어느 날, 그는 차를 몰고 카르멜 수녀원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녀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수녀님은 천천히 편지를 써보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2월 14일에 베들레헴으로 편지를 쓴다.

“한동안 저는 진지한 영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카르멜 수도회 생활에 대해 잘 모르거나 거의 알지 못하지만 그 생활에 매력을 느낍니다. 나는 나와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우 매료되어 있으며, 나 자신에게 죽어 그 위에 올라가라는 초대를 느낍니다. 동시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제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께 충실히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큰 소망이 있고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카르멜에 대한 소명이 어떤 것인지, 카르멜 수녀가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활절에 그는 수녀원에서 하루를 보냈고 행복하게 돌아왔다. 여름에는 마리아 수녀회와 함께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는다.

2005년 4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자 벨렌은 수녀회 동료들과 함께 로마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한다. 그곳에서 그는 클라라 수녀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낸다.

“수녀님,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심을 굳힌 것 같아요”.

다음 단계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는데, 벨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고 카르멜 입소 날짜는 10월로 정해진다.

2005년 여름, 벨렌은 퀼른에서 열린 WYD에 참석하여 자신의 결정을 재확인한다. 수줍음이 많았지만 그는 모든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수도원에 돌아갈 전날 온 가족이 평소 좋아하던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고 마지막 담배를 피웠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수도 생활에 대한 엄숙한 고백을 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

“저는 매우 행복하고 하느님께 예라고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자신을 바치는 이에게 백 배로 주십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고, 그게 인간의 일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고, 제가 원해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며, 그분께 감사하고 성인이 되기를 간구하며 반쪽짜리 인생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벨렌 수녀님은 후보자들의 스승이었다. 2017년 베들레헴의 동생 두 명이 수녀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수녀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봉헌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성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성소가 있고 그것은 우리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증거하는 거룩한 결혼에 대한 소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소중하니 소중히 간직하세요. 매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커진다면 결국 둘이 하나가 되는 성소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벨렌 수녀님은 2018년에 일찍 선종했다. 시복 절차가 요청되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페드로 발레스터(Pedro Ballester).

“이보다 더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



청년들은 더 친숙한 예를 요구한다. 왓츠앱, 플레이스테이션, 아이폰을 사용하는 성인! 파쿠르와 스케이트보드를 하는 성인! 텔레비전, 축구, 유튜브를 보는 성인! 앉아서 공부하기 어려운 성인,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실수를 하고, 두통약을 먹고, 생일을 기억해야 하는 성인...

즉, 살과 피를 가진 성인, 집 주변을 걸어 다니는 성인, 모방 가능하고 가깝고 평범하며 접근 가능한 진정한 성인!

“성인이 된다는 것이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나, 석쇠 위의 성 라우렌시오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성인이 되려면, 평범해야 하고 고군분투해야 한다. 하느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신다.

페드로 발레스터 아레나스는 1996년 5월 22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그는 각자의 직업적 이유로 영국으로 이주한 스페인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의사인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영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정착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페드로, 카를로스, 하비에르 세 아들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푸스데이의 신자이다. 10대 시절, 페드로는 맨체스터에 있는 오푸스데이에 다니기 시작했고, 자신으로 오푸스데이에 입회했다.

좋은 학교 성적 덕분에, 영국에서 가장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 입학하여 화학 공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2014년 12월, 런던에서 한 학기를 마친 페드로는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골반암이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를 위해 맨체스터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했다.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페드로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많은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티 병원과 기숙사를 오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는 낚시와 중동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방문객들과 그들의 고민에 관심을 보였고, 그들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페드로는 부모님에게 “나는 나의 소명을 가지고 하느님께 내 삶을 바쳤고, 하느님은 친구들에게 십자가를 주신다.”고 말했다.

3년간의 고통 끝에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깨달은 그는 묻는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

때로는 고통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런던이나 맨체스터의 기숙사, 동료 학생들, 본당, 간호사들 사이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다. 병동에는 그와 같은 젊은 암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가 그와 이야기하러 왔다.

한 번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 페드로가 잠들어 있고 그 옆에 암에 걸린 다른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페드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청년은 “아니요, 그는 자고 있어요. 페드로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여기 왔어요”라고 대답했다.

의미심장한 일화다. 그는 초밥을 좋아했다. 가끔 방문객들이 아래층에 있는 가게에서 스시나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곤 했다. 오후 4 시 이후에는 다음 날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음식을 특별 판매하기도 했다. 페드로는 방에서 전화로 일을 진행했다. 그는 누군가를 가게로 보내 어떤 상품이 있는지 확인했다. 초밥 가격이 1.80 파운드 이하로 떨어지거나 판매 중인 샌드위치가 마음에 들면 그는 “그린 라이트!”라며 구매를 승인했다.

아래층 가게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 스시 가격을 흥정하고, 친구가 좋아하는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얹어 주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페드로는 2018년 1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사제 40 여명을 포함해 약 50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가 사망한 지 6개월 후인 2018년 7월, 맨체스터 대학교는 페드로에게 사후 공학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는 화학공학부에서 수여한 최초의 사후 학위였으며, 페드로가 짧은 시간 동안 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남긴 인상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비비안 우체치 오구(Vivian Uchechi Ogu)

자신의 본당에서 활동한, 폭력의 피해자



비비안 우체치 오구는 1995년 4월 1일 나이지리아 베냉에서 태어났다.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성 바오로 본당 활동에 깊이 관여했다. 예를 들어, 그의 아버지는 평신도 단체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비비안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특히 수학을 잘해서 유제품 회사인 카우벨이 후원하는 수학 대회에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

비비안은 미망인과 고아 등 소외된 사람들을 돋기 위해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는 반의 대표로 기도 모임, 청소년 캠프, 연례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 선교의 날, 크리스마스 캐롤 축제, 연말 감사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성 바오로 본당에서는 11살에 청소년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4세까지 장애 아동과 고아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다.

2009년 11월 15일 일요일, 아직 고등학생으로 견진성사 교리를 받고 있던 비비안의 집에 무장 강도들이 들이닥쳐 가족을 강탈하고 비비안과 여동생을 도시에서 시골 지역으로 데려갔다.

강도들은 비비안을 강간하려 했지만, 그가 완강히 거부하자 총을 쏴 죽였다.

비비안의 영웅적인 삶과 죽음을 기리기 위해 에도 주 정부는 그가 순교한 땅을 베닌시 대교구에 기증했다. 2년 후, 지방 자치 단체는 그를 기리기 위해 거리를 현정했다.

나이지리아 가톨릭 주교회의는 시복의 원인을 2023년 9월 14일에 공개할 것을 승인했다.



마리아 레케나(María Requena)

간호사 안락사? 또는 완화 치료!



마리아는 2년 동안 암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어서 안락사를 고려할 수도 있었다. 죽기 4개월 전, 그는 블로그에 모든 치료와 고통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희생자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울 수 있고 이를 위한 많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의 순간에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든 질병에도 행복 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 사람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때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인간의 숨겨진 위대함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아 레케나는 1975년 10월 9일 스페인 카르타헤나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두 자매와 세 형제가 있다. 그는 카르타헤나에 있는 간호학교에서 공부했다. 마리아는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7년 동안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교대로 일하는 팀에서 전 부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사랑과 질병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배웠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바라 대학교와 마드리드의 라구나 케어 센터에서 마리아는 생명윤리 석사 학위와 완화의료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력 말년에는 카르타헤나에 있는 종합병원의 종양혈액학 부서에서 근무했다. 2015년부터는 카르타헤나 간호대학에서 마리아는 완화의료 교수로 재직했다.

어느 피정에서 세웠던 목적으로, 2016년에는 마리아가 다른 동료 및 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통해 종양혈액학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SECUNDA 스마일'이라고 불린다. 그는 종양혈액병동을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림과 연극 센터로 탈바꿈 시켰다. 그는 가장 필요한 곳에 축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2018년 카르타헤나 시의회로부터 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어릴 때부터 병자와 노인들을 방문했던 어머니로부터 받은 본보기 덕분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마리아를 너무 어린애 같다고 생각했던 일부 어른들은 놀라워했다. 그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숨겨서는 안 되며, 고통은 언제나 완화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마리아는 이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경쟁 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항상 그 자리를 얻고 싶어했다. 시험 결과는 그가 사망한 후에 발표되었고 정말로 그 자리를 얻었다. 그가 암 투병 중이던 당시 스페인 의회에서 안락사 법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마리아는 전국 신문에 편지를 발표했다.

"저는 중병에 걸린 사람이 죽음을 요청하는 것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들을 마땅히 돌보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시스템의 실패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치료로 지치면, 통증이 심해질 때, 어느 날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할 때 절대로 죽음을 제안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짐이 아니며 당신이 나를 돌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제가 다행히 수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일, 즉 고통을 덜어주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완화의료를 저에게 제공해 주세요. 하지만 제 생명을 끝내는 주사는 놓지 마시고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고통의 순간에 의미와 지지가 부족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이태석, 살레시오회 소속 선교사 신부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태석(1962년 10월 17일(음력 9월 19일) ~ 2010년 1월 14일)은 대한민국의 살레시오회 소속 선교사 사제 겸 의사로 아프리카 수단 남부(현재는 남수단)의 와랍 주에 있는 마을인 톤즈의 돈보스코 미션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2008년 11월 한국에 휴가차 입국하였을 때,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아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2010년 1월 14일 암투병 끝에 선종하였다.

부산시 남부민동에서 10남매 중 9째(4남 6녀 중 3남)로 태어나 송도성당에서 알로이시오 슈왈츠 신부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다. 1970년(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어머니가 자갈치시장에서 샷바느질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교회에서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서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과 산 벨기에 선교사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모로카이(MOLOKAI)를 보고 다미안 신부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학창시절에는 송도성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학생회, 성가대, 복사(사제를 돋는 역할) 등 종교 활동을 계속 하였다.

1981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가톨릭 사제가 되는 뜻을 품었다.

복무를 마치고 특히 청소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따라 1991년 8월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한다. 그리고 1992년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으로 입학했다.

2001년 6월 24일 서울 구로 3동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아프리카를 향해 선교사로 출발하여 12월 7일 아프리카 남부 수단 와랍 주 톤즈에 부임한다.

그곳에서 가난과 기아, 질병 등으로 도탄에 빠진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포함한 의료 봉사 활동과 구호 운동에 헌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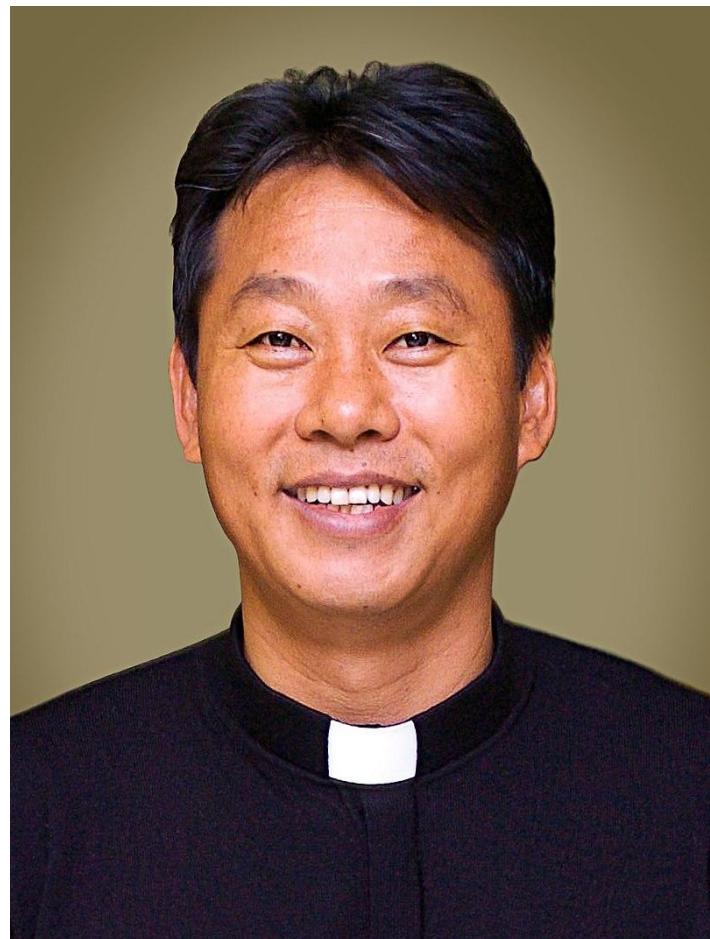
병실 12개 짜리 병원을 짓고 진료소를 만들어, 하루 200~300명의 환자를 돌보며 인근 80여개 마을의 순회진료와 예방접종도 했다.

학교를 만들고, 초·중·고교 12년 과정을 꾸려 수학과 음악도 가르쳤다. 그곳에서 학생들이 머물 기숙사도 짓고 톤즈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 악기도 가르쳤다.

그러나 2008년 11월 한국에 휴가차 잠시 입국하였을 때,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아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암투병 끝에 2010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 하였다(향년 47세).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반복하곤 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살레시오회 잡지 《살레시오 가족》과, 까리타스 수녀회의 《생활성서》에 연재되었고, 《친구가 되어주실래요》라는 단행본으로도 소개되었다.

2010년 이태석 신부의 혼신적 삶을 그린 영화 《울지마, 톤즈》가 개봉되었다. 2018년 신부님이 남수단 정부에서 대통령 훈장(Medal of the President)을 받았다.



엘레나 칼레로 바아몬드(Elena Calero Bahamonde).

본당 생활의 모범.



엘레나는 1990년 12월 6일 스페인 카디스에서 태어났다. 8살 때 가족과 함께 마드리드의 알칼라 데 헤나레스로 이사했다. 이 도시에서 수녀는 산 페드로 사도 본당에 입회하여 다른 젊은이들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룹의 영혼이었다.

엘레나의 한 친구는 일요일 외에는 미사에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회상했고, 엘레나는 자연스럽게 평일에도 미사에 가자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수요일에 만나서 미사도 보고 술 한 잔 하는 건 어때?”

그렇게 조금씩 그룹에 매일 미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계획을 세우거나 여행을 떠날 때 항상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했고, 남들을 지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줄 알았다.

2013년 6월 엘레나는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다. 2013년 8월에는 신앙의 해를 맞아 로마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 2014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주님은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오직 사랑으로 그분을 더욱 더 가까이 따르도록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엘레나는 계속해서 성당 청년회의 중심이 되어 성지 순례 등을 다녀왔다. 2014년 8월 15일,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 시간동안 그의 수첩에 적힌 메모는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한 모습을 보여준다.

“매 순간 “예”로 돌아가는 것.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지 말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노력합시다. 여기 제 몸이 누워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은 사제적 행위입니다. (2014년 9월).”

엘레나는 본당 친구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낸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저를 치료할 의사들과 다른 병원 직원들, 그리고 골수를 기증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특히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전년도와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모두 좋은 출발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불평 없이, 후회 없이, 평화와 평온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렇게 했다. 골수 이식 전에 의사들은

준비 화학 요법이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식 성공 확률이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대한 그의 반응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가였다. 자신의 고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몸은 그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식에 반응했다. 완전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엘레나는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의 모든 내면의 삶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말한다.

엘레나는 2014년 11월 20일에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에는 많은 친구들과 본당 단체, 대학 등에서 온 젊은이들이 참석했다. 그는 하느님의 종으로 인정받았다.



키아라 코벨라(Chiara Corbella).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탈리아의 젊은 어머니.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으며,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키아라 코벨라는 1984년 1월 9일 로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마리아, 언니 엘리사와 함께 세 사람은 카리스마적 쇄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키아라가 어릴 때부터 이들은 하루에 적어도 15분 넘게 함께 기도했다. 키아라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2002년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메주고리예에 있는 평화의 성모 성지를 잠시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 엔리코 페트릴로(23세)를 만났다.

두 사람은 2008년 9월 21일 아시시에서 결혼했다. 결혼 한 달 후, 두 사람은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그는 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막 시작한 때였다. 첫 초음파 검사 결과 딸이 무뇌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기는 출생 직후 사망할 것이 확실했다. 의사는 부모에게 낙태를 원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낙태를 거부하고, 딸을 낳아 세례를 받게 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키아라와 엔리코는 복음에 따라 결혼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이제 그들은 고통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승낙해야 했다.

마리아 그라치아 레티지아는 2009년 6월 10일에 태어나 세례식에 맞춘듯이 30분 후에 세상을 떠났다. 키아라와 엔리코는 흰색 옷을 입고 키아라는 바이올린을, 엔리코는 기타를 들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키아라는 강단에 올라 딸이 짧은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준 모든 기도와 좋은 감정에 감사를 표하고 존경심을 표했다. 미사와 장례식이 끝난 후, 엔리코가 쓴 메시지와 두 사람의 서명이 담긴 기념품을 나눠주었다.

“우리는 30분 동안만이라도 너를 품에 안을 수 있었어. 많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지. 우리가 널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네가 영원을 위해 태어났다는 건 모를 거야. 인생은 경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기다린 이유이기도 하단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아는 데 필요한 것을 하고, 이 만남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란다. 너는 준비된 채로 태어났고, 우리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너와 함께했으니 이제 너는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5개월 후 키아라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아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이도 살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신을 계속했다. 아기 다윗은 2010년 6월 24일에 태어나 세례를 받고 생후 38분 만에 사망했다.

몇 달 후 키아라는 이렇게 적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아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아이입니다. 하느님 위에 군림하려는 우리의 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이 그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아들이었기에 우리를 위한 아들을 원하는 우리의 ‘권리’를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골리앗이 죽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10월, 키아라는 셋째 아이 프란체스코를 임신했다. 이 세 번째 아기는 정말 건강했다. 하지만 다섯째 달에 키아라의 혀에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는다. 이 종양은 가장 공격적인 종양 중 하나이며 가능한 한 빨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키아라는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를 거부한다. 그는 이미 뱃속에 살고 있는 아들의 이름이 아닌 '태아'라고 불리는 것에 짜증이 났다. 프란체스코는 2011년 5월, 37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키아라는 6월 3일에 수술을 받았고 1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2012년 4월, 키아라와 엔리코는 메주고리예 순례를 계획했다. 17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전세 비행기는 더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지 못했다.

5월에 그들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가졌다. 키아라는 2012년 6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유해는 첫 두 자녀와 함께 묻혔다. 2018년 9월 로마에서 시복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는 결혼 생활을 위한 좋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다.



카를로 아쿠티스(Carlo Acutis), 15 세 소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많다.



2020년 10월 10일 아씨시에서 시복된 이 소년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의 삶은 여러 다큐멘터리와 여러 책의 주제였다. 7개 언어로 제공되는 카를로 아쿠티스 협회 웹사이트에는 그의 생애, 성덕에 대한 명성, 헌신, 시성식에 대한 소식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청바지와 운동화, 스포티한 스웨터 차림의 카를로 성인의 유골이 안치된 유골함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카를로의 무덤은 10대 청소년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카를로는 1991년 5월 3일 런던에서 이탈리아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사흘 뒤인 2006년 10월 12일에 사망했다.

카를로는 특히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에 능숙한 청소년으로 유명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가톨릭 신앙의 기적들, 즉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기적들을 정리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신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종종 그를 “인터넷의 수호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가톨릭 신앙을 깊이 실천했으며, 특히 성체성사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졌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돋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태도는 그의 나이를 초월한 성숙함을 보여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의 중보기도로 인한 기적을 승인하여 시복으로 이어졌다. 이 기적은 췌장의 선천성 기형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었던 브라질의 마테우스라는 소년이 치유된 사건이다.

보통 마테우스는 먹은 것은 모두 토해냈다. 마테우스는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 있는 카를로의 유해를 참배하러 갔다. 그는 그저 “토하기를 멈추고 싶다”고 말했고, 즉시 완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2020년 10월 10일 카를로는 아씨시에서 시복되었다. 강론에서 빌리니 추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평범한 청년이었고, 단순하고 자발적이며 친절했고,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으며, 축구를 했고, 또래 친구들이 많았으며, 현대적인 사회적 소통 수단에 매료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 컴퓨터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매력의 은사를 지녔고 모범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를 잘 사용했으며, 특히 인터넷을 하느님의 선물이자 사람들을 만나고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는 신앙은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깊이 몰입하게 하며 복음의 기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다고 간증했습니다. 복자

카를로의 매혹적인 경험에 이끌려 그를 따라 우리의 삶이 빛과 희망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여, 저희를 위하여 빙어 주소서”.

